

## 수화강의가 대학생의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 경 진\*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

### 《 요 약 》

---

본 연구에서는 수화강의가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수화 강의를 수강한 Y대학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나타난 주관식 답변을 분석하였다. 2013학년도 1학기에 수화강의를 수강한 50명의 대학생들에게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개 문항을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 5명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화강의를 수강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업이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대학생들은 수화를 습득하면서 농인들의 삶과 문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셋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과정에 교양과목으로 장애이해과정을 개설한다. 넷째, 장애인특례입학을 확대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 수화, 농인, 장애인

## 1. 서 론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의식과정이며, 인간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인식의 토대와 출발점은 어떤 신비한 인식충동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실천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삶속에서 인식은 계속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또한 인식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적 진리가 확보되어 궁극적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늘 새롭게 나타나는 상대적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절대적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규석, 2003). 즉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진리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

---

\* 교신저자(kimjin@hanrw.ac.kr)

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전적인 의미의 절대적 진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장애인과의 접촉 횟수가 적거나 장애이해교육을 받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난 뒤의 인식은 새로운 진리로서 변화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릴 적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 점차 자랄수록 편견이 고착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으며(김영성, 1999; Kathryn & Ryan, 1981), 일반아동들은 장애아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Salend, 2001; 박소현, 1999; 조용태, 1996; Roberts & Zubrick, 1992).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인지적 논리 합리화와 경험을 통한 선택적 강화 과정을 거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한규석, 2003).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유·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해 왔다. 2008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학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교육과학기술부, 2012) 권장하고 있다.

이해교육은 장애가 개인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차이들 중의 한 차원이라는 접근보다는 지나치게 모든 관심을 장애에 두어 언급하고 있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분화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박승희, 2003). 장애에 초점을 두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아동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오히려 장애가 부각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서울경인 특수학급 교사연구회, 2006; 박현숙, 1999). 이를 완화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로서 장애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소현, 1996).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성,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 장애 등 다양한 차이점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김경진, 2004; 박승희, 2003)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기성세대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규교육 과정과 교사의 태도, 장애인과의 개인적인 접촉 경험의 충격 등을 중심으로 형성하게 된다(강석주, 2008).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경험, 장애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기회 제공과 함께 비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인식 변화를 위한 개개인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역학기대도 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이라 하였고, 이러한 접촉에 의한 물리적 거리의 접근은 심리적 거리의 접근을 촉진한다고 하였다(강수균, 2003).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남을 통한 서로의 이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인간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여 상대의 생활방식과의견을 존중하여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김경진, 2004; 이상애, 2003)고 밝히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심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까지도 이해하여 주어야 하므로 그들의 삶을 이해한 다음에 장애이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에서는 특수교육관련 강좌수강 경험에 따른 일반인의 장애에 대한 태도는 특수교육 관련 강좌수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양명희, 임은미, 2004)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특수교육관련 강좌수강을 통해 쉽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음으로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이한우, 이원형 2004; 양명희, 임은미, 2004)고 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교양강좌로 수화를 개설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의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와 함께 농사회와 농문화를 이해하게 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식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 장면에서 비장애아동들의 인식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특수학급 교사연구회, 2006; 박승희, 2003; 이상애, 2003; 강수균, 2003; 김수연, 2002; 성수자, 2001; 문영호, 2000; 오선영, 2000; 박현숙, 1999; 홍승미, 1997; 노은미, 1996; 정선화, 1992; 변민수 외, 2010; 강석주, 2008)들은 다수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한우, 이원형, 2004; 양명희, 임은미, 2004; 이철원, 2000)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식교육 측면에서 수화강의가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목적

- 1) 수화강의를 수강한 비장애대학생들의 수강 후 장애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 2) 변화된 비장애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장애인식 변화를 위한 제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II. 연구 방법

### 1. 장애이해 교육 내용

2003년 1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실시한 강의 중 수화를 제외한 장애이해 교육 내용으로 첫째,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와 관련된 내용, 둘째, 장애인들의 교육과 삶, 셋째, 농사회와 농문화, 넷째, 농인들의 사회생활, 다섯째, 장애인의 출현률 및 원인, 여섯째, 장애인 관련법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소재 Y대학에 재학하고 2013년 1학기 수화강의를 수강한 학생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학과별, 학년별, 성별로 학생들을 선정하여 고르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과 있는 학생들을 고르게 선정하였다.

셋째,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없고 거주지가 대도시와 지방인 학생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된 5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담자 A는 문과대학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으로 대도시에서 살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편이다. 면담자 B는 사회과학대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으로 지방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던 학생이다. C는 간호대학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으로 지방출신이며 환자를 다루는 전공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D는 상경대학에 다니는 4학년 남학생으로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E는 공과대학 4학년 남학생으로 대도시에 살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방법 및 절차

장애이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는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고 경험하는 생활 등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유리하다. 심층면담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문헌 연구와 강의 결과 및 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심층 면담을 위한 사전 조사

2003년 1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수강 후 나타난 학생들의 의견 중 장애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1차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선정하였다.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2013년 1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성된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강의를 수강하게 된 동기 2) 장애이해를 위한 사전교육 여부 3)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 4)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5)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6) 장애인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및 내용 7)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 8)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호칭 9) 장애인과의 교류 경험 유무 10) 장애와 관련된 기타 내용을 선정하였다.

### 2) 심층 면담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면담 7일 전에 선정된 5개 문항을 심층면담 대상자들에게 제시하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2013년 6월 3일과 10일 양일간 Y대학교 강의실에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여 주고 연구자의 문항별 질문을 통하여 심층면담 대상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면 그 과정을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5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 강의를 수강한 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까?
- 2) 장애인에 대하여 평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3)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4)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5) 대학에서 지원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4. 자료 분석 및 해석

대학생들의 장애인식 변화를 질적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답한 내용을 연구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심층면담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 및 해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 실시 후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전사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내용이나 용어를 확인한 후 연구 주제에 맞게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 공통 주제별로 조직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연구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자료를 해석한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집된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제를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인식은 본인의 주관이나 살아온 환경에 따라 경험한 수용된 정보로 특히 환경에 따라 형성된 인식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어 변화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소한 수화를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수화로 인하여 생겨난 청각장애인들의 농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농인들을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였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와 관련하여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들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 이 강의를 수강한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까?

평소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이 강의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고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저 자신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인지는 부끄럽다(A와의 면담 중에서).

수화가 청인들이 쓰는 언어의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며 외국어처럼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화가 재미있었고 보여주신 장애이해 영화도 아주 재미있었으며 장애인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서 좋았다. 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D와의 면담 중에서).

저는 대도시에서 자랐으며 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전공자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던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수강한 친구들도 단순히 수화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E와의 면담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농인들이 수화를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농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농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수화강의가 개설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장애인과의 많은 접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수균(2003)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이라고 한 연구 내용과 일치하며, 또한 비장애대학생들이 수화강의를 통하여 장애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변화되었다는 결과 또한 이상애(2003), 성주자(2001), 문영호(2000), 노은미(1996)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2. 장애인에 대하여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옆 반에 있는 지체장애인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 때 그 친구가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를 '애자' 라고 부르면서 놀리기도 했어요, 저도 아무 죄의식 없이 '애자'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큰 잘못을 하였구나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설명하셨는데 정말로 공감하였고 이제는 가족의 아픔을 개인의 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와의 면담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적은 없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나와는 다른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한 함께 해 보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많이 좋아졌으며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도 해 보고 싶습니다(C와의 면담 중에서),

지하철을 타보면 물건을 팔거나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을 가끔씩 보게 될 때 나는 무시하

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 우선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평소 내가 장애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자세라고 볼 수 있다(E와의 면담 중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표현하였으며,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장애인을 이해하고 있었다. 일반아동들은 장애아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Salend, 2001; 박소현, 1999; 조용태, 1996; Roberts & Zubrick, 1992) 연구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모든 사람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로서 장애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소현, 1996)고 강조한 바와 같이 일방적인 장애교육보다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성,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 장애 등 다양한 차이점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김경진, 2004; 박승희, 2003)고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기피하는 현상이 비장애인의 잘못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꼭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고 장애인들도 동등함을 강조하고 당당하게 입해야 비장애인들의 자세도 강요가 아닌 스스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봅니다(A와의 면담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을 받았는지는 오래전 일이라 자세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번에 수화를 배우면서 장애인들의 삶이나 어려움을 배운 것을 계기로 장애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은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선 장애인을 보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인식부터 바꾸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으로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C와의 면담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기성세대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규교육 과정과 교사의 태도, 장애인과의 개인적인 접촉 경험의 충격 등을 중심으로 형성하게 된다(강석주, 2008)고 한 것과 같이



수화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의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은 있었으나 장애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기회 제공을 한다면 충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4.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인을 생각한다고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하니까 장애인이 있으니까 하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비장애인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서로를 생각하고 한 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B와의 면담 중에서).

저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배웠어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관련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기관장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도요. 법은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단지 생산적 결과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행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보다 못하겠지요. 그러나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주위에서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들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생각한다면 변화의 여지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D와의 면담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서도 장애이해를 위해서 물리적인 접근보다는 자발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박승희(2003)가 주장한 장애는 개인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차이들 중의 한 차원이라는 접근보다는 지나치게 모든 관심을 장애에 두어 언급하고 있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분화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일치하며,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2006)와 박소현(1999)의 장애에 초점을 두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아동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오히려 장애가 부각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강의를 듣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관련 강좌수강을 통해 쉽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음으로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할 수 있고(이한우, 이원형,

2004)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하기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양명희, 임은미(2004)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5. 대학에서 지원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다소 무리일지 모르지만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전 대학생이 수강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강의 과목으로 예를 들어 ‘장애의 이해’ 라는 식으로 개설되면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활동을 더 강화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센터의 존재를 알고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B와의 면담 중에서).

장애와 관련한 대학 동아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학 내에 손말사랑회라는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수화를 배우고 또 농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가지는 수화동아리가 있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동도 활발하고 농민들을 만나는 시간도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수화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던 조도 있었습니다, 이런 동아리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생겨나야지 너무 학교에서 장애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C와의 면담 중에서).

요즘은 대학 입시 전형 방법으로 장애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인 장애인특별전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수업시간에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대학들은 많은 장애학생들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대학도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장애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공부를 함께 하고 축제를 함께 하면서 교류를 넓힌다면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반대를 하기도 하겠지만요(E와의 면담 중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하게 장애인식의 변화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 특히 장애이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에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장애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며, 교양과목으로 ‘장애의 이해’ 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학점도 취득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수의 장애학생들이 입학하여 비장애학생들과 대학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화강의가 비장애대학생의 장애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Y대학에서 수화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화강의를 수강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업이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수화를 습득함으로써 농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농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농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화를 배우겠다고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에 장애이해과정을 개설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며, 관련 동아리도 활성화하여 많은 학생들이 강의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장애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특례입학을 더 확대하여 장애학생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화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수화강의 종료 후 장애인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연구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한정된 모집단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해정도와 효과에 대한 결론을 모든 대학 학생들의 인식 변화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 수화과목을 개설한 전국의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강수균 (2003). **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강석주 (2008).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진, 허 일 (2004). 대학생의 수화 인식도 연구. **특수교육연구**, 11(1), 214-233.
- 김경진 (2004). 통합교육 장면에서 대학생의 농문화 인식연구. **재활복지연구**, 2, 69-85.
- 김경진 (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23-39.
- 김병하 역 (1992).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수연 (2002). 놀이프로그램의 통합 및 놀이수정 교수 여부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수자 (2001). 장애아동 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대식, 김수연, 김종호, 김은주, 권택환, 방성우 (2011). 정규 교과교육시간을 이용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일반학생의 장애이해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8(1), 25-45.
- 이한우, 이원형 (2004).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1), 471-492.
- 이철원 (2000).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태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 8(2), 59-71.
- 오선영 (2000). 또래지원망 프로그램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명희, 임은미 (2004).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 과목 수강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1), 203-223.
- 박현숙 (1999). 경도장애학생의 완전통합을 위한 초등학교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일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4(1), 1-29.
- 박승희 (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교육문화사.
- 서울·경인 특수학급 교사 연구회 (2006). **일반 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정선화 (1992).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용태 (1996). 또래에게 거부된 정신지체아동의 행동특성. **특수교육학연구**, 17(1), 103-120.
- 최성규 (1999). 청각장애아 언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 이동: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의 타당성. **특수교육학 연구**, 33(2), 121-143.
- 한규석 (2003).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Brueggemann, B. J. (1999). *Lend Me Your Ear: Rhetorical of Deafnes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34-37.
- Roberts, C., & Zubrick, S. (1992).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of children with mild academic disabilities in regular classrooms. *Exceptional children*, 59(30), 192-202.

- Salend, S. J. (2001).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Effective and Reflective Practices*. New Jersey Columbus, Ohio: Merriam Prentice Hall.
- Tompkins, L. M. B. (2000). *Deaf adults' perspectives on their Bilingualism in American Sign Language and English*. Ph. D. Gallaudet University Press.

## An effect of a sign language lecture on the disabili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Kim, Kyung-Jin**

Korea National College of Welfare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n effect of a sign language lecture on the disability awareness of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10 items were selected by analyzing short-answers in the lecture evaluation of students of Y University who took the sign language lecture from 2003 to the second semester of 2012. With the selected items, the 1st survey was carried out to 50 students who took the lecture in the 1st semester of 2013. Finally 5 items were selected to take an in-depth interview with 5 participa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majority students taking the sign language lecture were benefited from the class to understand the disabled persons and their awareness was turned from negative to positive. Secondly, students could understand life and culture of the Deaf by learning the sign language. Thirdly, the study found out the need of reinforcing roles of the disabled student support center and of opening a course for disabled understanding as a liberal arts subject.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xpand opportunity of disabled person special admission system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interact between the disabled students and the non-disabled students.

**Key Words** : sign language, Deaf, the disabled

---

논문 접수: 2013. 08. 02 심사 시작: 2013. 08. 09 게재 확정: 2013. 09. 23